

여성 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 :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검증

김자영*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취업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7년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2차 조사를 사용하여 A-mos 20.0을 활용한 경로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장애수용과 취업여부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수용 또한 취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차별경험이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차별경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취업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심리·정서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될 것이며, 또, 긍정적인 자기가치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제어 : 여성장애인, 차별경험, 장애수용, 취업여부, 매개효과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meliny@hanmail.net)

I. 서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취업률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장애인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36.9%로 전체인구의 취업자 비율인 61.3% 보다 낮으며, 장애인 실업률도 5.1%로 전체인구 실업률인 3.4% 보다 약 1.5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김성희 외, 2017). 특히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더욱 취약계층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취업 장애인 중에서 남성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74.1%, 여성장애인은 25.9%로서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실업률은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보다 0.8%p 높게 나타났다(안태희·김영애·이금진, 2018). 그리고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대기업들 중에서 11개 대기업의 여성장애인 고용률이 10%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중 여성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도 5곳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¹⁾.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고 또 실업률이 높은 것은 이미 교육의 차이에서 예견되었던 문제로(이선우, 2009), 여성장애인의 낮은 교육수준은 취업의 기회를 제한시켜 궁극적으로 취업률의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즉, 여성장애인들은 인적자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취업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여성장애인들이 교육수준이 낮은 실정은 교육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여성장애인들은 교육뿐만 아니라, 고용, 정치 등 여러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당하고 있다(배화옥·김성희, 2004; 안태희·김영애·이금진, 2018; 조금분·백진아, 2018).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심각한 편인데, 특히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심각하다.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이라는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놓여 있는데(김정애, 1999), 비장애인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장애인이면서 여성이라는 주변적 위치를 갖고 있는 대상으로, 교육, 노동, 문화 등의 여러 영역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아 왔다(이승기·윤상용·서동명, 2016).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가족 내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 및 전체사회에서 걸쳐 모든 방면으로 존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선우, 2004).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들보다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폭력을 당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 장애로 인해 학교생활, 결

1) 뉴스워치, 2017/09/18

혼, 보험제도의 계약 등에 있어서 사회적 차별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선우, 2009).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은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이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는데(백은령·오혜경·전동일, 2007),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낮은 취업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장애인들이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무시나 차별, 입학·전학 시 받았던 차별, 그리고 학교생활에서 교사와 또래친구들로부터 경험하는 차별은 심리적 위축감을 초래하고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을 저하시켜 역량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낮은 교육수준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취업의지 저하와 취업기회를 제한시켜 취업률을 낮아지게 한다. 이는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진 기존의 여러 연구들(박미희, 2018; 송진영, 2014; 오혜경, 2002)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애수용은 장애로 인한 상실과 불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에 적응해 나가려는 변화과정을 의미하는데(김동주·고민석, 2012), 이는 장애인의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장애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고 긍정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취업의 선결과제로서 취업준비에 앞서 먼저 장애인 본인 스스로 자신의 장애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장애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어지기 때문이다(김영애·임유진, 2018). 이는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유승희(2016), 송지연(2018)의 연구에서는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차별경험과 부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는데,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자존감의 상실과 스스로의 가치감이 저하되어 장애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장애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여러 선행연구들(김동주·고민석, 2012; 송진영, 2014; 양혜린·고윤정·박연미·이혜란, 2017)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서 여성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장애수용과 취업에 각각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장애수용은 차별과 취업 간의 관계에서 매개작용을 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장애인의 취업 측면에서 차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장애수용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장애인의 차별실태 및 차별경험, 장애인의 취업 그리고 장애수용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보고되어 왔으나, 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취업에 관한 관련

성, 그리고 장애수용과 취업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차별, 장애수용, 취업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본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장애수용은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여성장애인의 차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차별을 “장애를 사유로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차별적 태도나 인식과 연관되는데,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할 경우 장애인으로 하여금 균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시키고 다양한 차별을 발생시킨다(권선진, 2008). 즉,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균등을 막았던 요인은 사회적 물리적 장벽인데, 이로 인하여 장애인은 사회참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불평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러한 불평등구조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오혜경, 2000).

특히 여성장애인의 차별문제는 상대적으로 남성 장애인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차별로 취약계층 가운데 더욱 차별을 받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성우월적 사회풍토에서 차별받는 여성의 문제까지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권명옥·서은정·이한우·이상복, 2000).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 성차별과 장애인으로서 장애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이중적 차별구조 속에 놓여 있는데, 이는 상호작용하여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보다 복합적이고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게 한다(김정애, 1999). 즉, 여성장애인은 이중적 소외를 경험하게 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게 되어 ‘여성’ 과 ‘장애’ 뿐만 아니라 ‘빈곤’, ‘노인’ 등 다양

한 문제에 노출되어 다중의 차별을 겪게 되는 것이다(김하영, 2013).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임은자(2004)는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사회체제 속에서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차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가정폭력 및 결혼과 관련된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실태와 사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오혜경(2006)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장애인 절반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장애인으로서 이중의 고통과 차별을 받는 실정이며, 그리고 여성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최하위의 약자이고 삶의 질 차원에서 고위험 집단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사회적 관심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중차별을 설명하기 위해 이론적 근거가 되는 성차별 이론과 장애차별이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성의 성차별은 성역압적 가부장제와 성별 노동분업이라는 갈등주의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설명할 수 있는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가부장제는 남성이 행하는 활동에는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활동은 생산적이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성별 노동분업은 노동시장 참여에 있어서 여성은 생산과정에서 배제되어 보조적으로 참여하거나 차별적으로 배치되는 반면에 남성은 생산관계에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맺음을 가리킨다(배화옥·김성희, 2004). 다음으로 장애차별이란 사회에 속한 장애인을 동화되지 못하고 걸돌게 되게 하는 사회적 권력, 문화적 가치, 개인적 편견 등이 결합된 것으로,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뜻하는데(김정애, 1999), 장애차별을 설명해주는 이론으로 우생학이론, 생산성이론 그리고 편견이론이 있다. 먼저 우생학이론에서는 병약한 자들에 대한 보살핌이나 치료를 반자연적인 행위라 간주함에 따라 장애인을 격리하여 수용하였으며, 그리고 생산성이론에 따르면, 장애인은 노동력이 부족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애인은 생산에 기여할 수 없는 부족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진다(배화옥·김성희, 2004). 다음으로 편견이론에서는 고용주의 편견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차별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고용주는 개인적 편견에 의해 특정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을 싫어하게 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을 싫어하는 고용격리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강동욱, 2002).

2. 여성장애인의 취업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장애의 이중차별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특히 노동시장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성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74.1%, 여성장애인은 25.9%로서 전체인구 중 남성(57.4%)과 여성(42.6%)의 취업자 비율 대비 여성 장애인과 남성 장애인의 취업자 비율 격차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남성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47.7%, 여성장애인은 52.3%로 여성장애인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이들 중에서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여성장애인은 11.4%, 남성장애인은 17.6%로 확인되었다. 또, 비록 취업을 했더라도 여성 장애인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3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태희·김영애·이금진, 2018).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기존의 연구들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혜경(2002)은 여성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가구소득, 건강상태, 필요도움 정도, 사회적 차별정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운정·박경수·이석호(2014)는 연령, 학력(중졸·고졸), 기초생활보장수급여부, 중증장애여부, 장애유형 감각장애, 만성질환여부, 자격증 보유여부가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김정아(2013)는 여성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혼인상태, 연령, 수급여부, 장애유형, 장애정도, 만성질환, 지역, 일상생활능력 도움여부, 자격증 보유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차별과 취업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에 불리하고 취약한 실정인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 장애인은 생산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생각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과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도 널리 퍼져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오해는 필연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가져오게 되는데, 즉,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 등 노동비용의 증가로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는다(이승기·윤상용·서동명, 2016).

더욱이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노동시장에서 더욱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다. 여성장애인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에서도 무능력하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을 맡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으며(Barnes et al., 1999), 또 여성장애인은 용모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신체적 및 정서적 능력이 낮을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이선우, 2004). 이는 여성장애인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남성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이 여성장애인에 비해 2.8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된 결과(안태희·김영애·이금진, 2018)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유동철(2000)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보다 장애인이 노동력의 질이 떨어진다는 보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라는 특징에 비해 장애인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더 많은 차별을 경험한다고 언급했다.

장애인의 차별과 취업 간의 관련성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송진영(2014)의 연구에서도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적을수록 취업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준모(2016)의 연구에서는 정신적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차별경험과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취업 여부의 변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미희(2018)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차별경험이 미취업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하경희·성준모(2012)는 정신장애인의 취업이 어려운 요인으로 사회적 낙인 및 차별경험을 언급하였다. 여성장애인의 차별과 취업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는데, 오혜경(2002)은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차별 정도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정도가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 차별, 장애수용, 취업 간의 관계

장애수용은 장애에 대한 적응과 관련 있는데(Li & Moore, 1998), 장애로 인한 상실과 불편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사회에 적응해 나가려는 변화과정을 뜻하는 것으로서(김동주·고민석, 2012), 장애가 있는 신체적 조건에 중점을 두지 않고 타인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김성희, 2000).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후천적 장애인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이들이 겪

는 사회적 차별은 자신들의 삶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를 수용하는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양혜린·고윤정·박연미·이혜란, 2017). 왜냐하면 장애로 인한 차별은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지게 되며(강미영, 2009), 그리고 심리적 위축감으로 인하여 자신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수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차별경험이 언급되고 있으며(양혜린·고윤정·박연미·이혜란, 2017), 선행연구들을 통해 차별이 장애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동주·고민석(2012)은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자료를 가지고 현재 취업중인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차별이 장애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장애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밝힌 연구들이(양혜린·고윤정·박연미·이혜란, 2017; 정승원, 2012; 최서경, 2018) 보고되고 있다.

장애를 수용함으로써 장애인은 자신의 장애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자신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지고 안정되고 또 쉽게 좌절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이채식·김명식, 2012). 이는 장애수용도가 장애인 개인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여러 연구결과들(권충훈·최희철, 2016; 김하경, 2002; 정승원, 2014)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로, 장애수용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기 가치감이 높아져 성공적인 사회 적응과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장애수용과 취업 간의 정적인 관련성을 보고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선 유승희(2016)와 송지연(2018)의 연구에서는 장애수용은 취업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김영애·임유진(2018)은 장애인의 높은 장애수용도가 취업준비행동을 촉진시켜 취업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밝혔으며, 또 이채식·김명식(2015)은 중도장애인의 취업결정에 장애수용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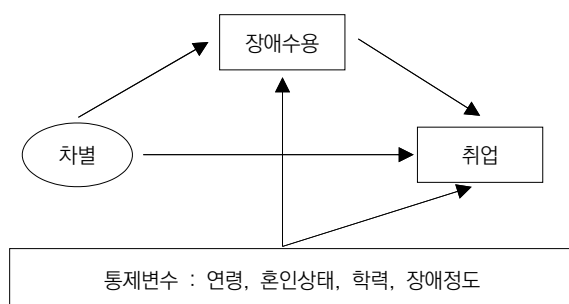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들을 근거로 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과 취업 간의 관계는 정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차별과 장애수용 사이에서 그리고 장애수용과 취업 간의 관계에서도 정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애수용이라는 변인이 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취업 간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 매개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내의 연구들 중에서 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취업 간의 관계에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으로,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장애수용과 취업여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송진영·김형모, 2014)가 있을 뿐이다. 특

히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차별경험과 취업 간의 관계에서 장애수용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차별경험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장애수용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장애수용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연구 모형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²⁾

2. 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2차 웨이브 2차 조사를 활용하였다. 2차 웨이브는 1차 웨이브의 기본틀을 유지하여 시계열적 연속성과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였고, 그리고 정책연구형 패널조사로 구축하여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기존 조사와 명확한 차별화를 꾀하였으며, 경제활동과 관련된 표본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접목시켰는데, 2017년에는 패널조사의

2)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간의 관계를 각각 공분산 처리를 하였으며, 연구모형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중단면 구조를 설계 및 구축하여 2차 웨이브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18).

본 연구는 2차 웨이브 2차 조사가 완료된 총 1,468명의 여성 장애인 가구원 중에서, 일상생활 차별경험에 무응답한 28명을 제거한 1,440명을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3. 변수 및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취업여부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취업여부는 취업=1, 미취업=0으로 더미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2) 독립변수: 일상생활 차별경험

독립변수인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으로 차별경험 있음=1, 차별경험 없음=0으로 더미화하여 측정하였다.

3) 매개변수: 장애수용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장애수용이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장애수용 지표에서 사용된 장애수용은 총 12개의 문항(장애인식 9문항 + 장애극복 3문항)으로 구성³⁾되어있다. 장애인식은 Kaiser, Wingate, Freeman & Chandler (1987)가 개발한 장애수용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장애극복은 백영승 등(2001)이 개발하고 강용주 등(2008)이 타당도를 검증한 장애극복 요인을 사용하였다. 총 12개의 문항들 중에서 1, 3, 7번 문제는 장애수용과 관련된 부정적 문항에 해당되어서 역코딩을 한 후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문항들을 모두

3) 각각의 문항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장애인식에 관한 문항들은 ①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한다. ② 장애 때문에 세상을 더 넓게 생각하게 되었다. ③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속상하다. ④ 나는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⑤ 나는 장애인이지만 내 인생에 만족한다. ⑥ 장애 자체보다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⑦ 장애는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⑧ 장애 자체보다 정직이 더 중요하다. ⑨ 인생은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고 장애극복에 관한 문항들은 ⑩ 장애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만큼 재미있는 일이 많다. ⑪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⑫ 장애 때문에 불편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로 구성되어 있다.

합산한 후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수용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같은 척도를 사용한 기존의 연구들의 신뢰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양혜린·고윤정·박연미·이혜란(201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10$ 으로, 김자영(2018)의 연구의 경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0$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Cronbach's $\alpha=.921$ 로 확인되었다.

4) 통제변수: 연령, 혼인상태, 학력, 장애정도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연령, 혼인상태, 학력, 장애정도로 설정하였다.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하였으며, 학력의 경우에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자료에서 제시된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4, 대졸=5, 대학원졸=6을 재구성하여 고졸 미만=0, 고졸 이상=1로 더미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다음으로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1, 배우자 없음=0 으로 부여하였고, 장애정도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자료에서 제시된 중증=1, 경증=2를 경증=0, 중증=1로 부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연령(김나래, 2017; 오혜경, 2002; 유승희, 2016), 학력(유승희, 2016; 송지연, 2018), 혼인상태(김나래, 2017), 장애정도(유승희, 2016; 김영애·임유진, 2018; 송지연, 2018)는 장애인의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유승희, 2016), 학력(노승현, 2007; 유승희, 2016; 정승원, 2012), 혼인상태(정승원, 2012), 장애정도(노승현, 2007; 유승희, 2016; 정승원, 2012)는 장애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통제변수인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장애정도를 매개변수로 설정한 장애수용과 종속변수로 설정한 취업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의 측정을 정리해서 다음의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변수 측정

구분	변수명	변수측정
종속변수	취업	미취업=0, 취업=1
독립변수	일상생활 차별경험	차별경험 없음=0, 차별경험 있음=1
매개변수	장애수용	장애수용척도(1~5점 문항)+ 장애극복 요인(1~5점 문항)
통제변수	연령	연속변수
	학력	고졸미만=0, 고졸이상=1
	혼인상태	배우자 없음=0, 배우자 있음=1
	장애정도	경증=0, 중증=1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우선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분석을 사용하여 변수들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리고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여성 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MOS 20.0을 활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먼저 빈도 및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해서 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우선 학력은 고졸이상이 63.9%로 고졸미만(36.1%)에 비해 1.77배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혼인상태의 경우에는 배우자 없음이 54.2%로 배우자 있음(45.8%)에 비해 약간 많으며, 장애정도는 경증이 65.2%로 중증(34.8%)에 비해 1.8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설정한 일상생활 차별경험은 차별경험 있음이 63.7%로 차별경험 없음(36.3%)에 비해 1.75배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설정한 취업여부는 미취업 상태가 64.9%로 취업상태(35.1%)에 비해 1.85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은 평균 47.15(표준편차 13.33)세로 나타났다. 또 매개변수로 설정한 장애수용은 평균 37.94(표준편차 10.84)로 확인⁴⁾되었는데,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아서 Log 함수로 변환해서 측정하였다.

4) 장애수용은 장애인식 9문항과 장애극복 3문항이 합산된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문항들은 1~5점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수용 척도의 만점은 60점으로 확인된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N=1,440

변수	구분	빈도(명)	비율(%)
학력	고졸미만	520	36.1
	고졸이상	920	63.9
혼인상태	배우자 없음	780	54.2
	배우자 있음	660	45.8
장애정도	경증	939	65.2
	중증	501	34.8
일상생활 차별경험	차별경험 없음	522	36.3
	차별경험 있음	918	63.7
취업여부	미취업	935	64.9
	취업	505	35.1
연령(세)	(평균=47.15 표준편차=13.33, 최소값=19.00 최대값=68.00)		
장애수용	(평균=37.94, 표준편차=10.84, 최소값=12.00 최대값=108.00)		
Ln(장애수용)	(평균=3.61, 표준편차=0.23 최소값=2.48 최대값=4.68)		

2.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의 〈표 3〉에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차별은 장애정도($r=.244$)와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Ln(장애수용)($r=-.202$), 취업여부($r=-.175$), 연령($r=-.131$), 학력($r=-.062$), 혼인상태($r=-.165$)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Ln(장애수용)은 취업여부($r=.159$), 학력($r=.134$), 혼인상태($r=.131$)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연령($r=-.055$)과 장애정도($r=-.132$)와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취업여부는 학력($r=.159$)과 혼인상태($r=.113$)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반면에 장애정도($r=-.195$)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은 혼인상태($r=.304$)와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이는 반면에, 학력($r=-.335$), 장애정도($r=-.237$)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혼인상태는 장애정도($r=-.268$)와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차별	Ln(장애수용)	취업여부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장애정도
차별	1						
Ln(장애수용)	-.202**	1					
취업여부	-.175**	.159**	1				
연령	-.131**	-.055*	-.026	1			
학력	-.062*	.134**	.159**	-.335**	1		
혼인상태	-.165**	.131**	.113**	.304**	.021	1	
장애정도	.244**	-.132**	-.195**	-.237**	-.046	-.268**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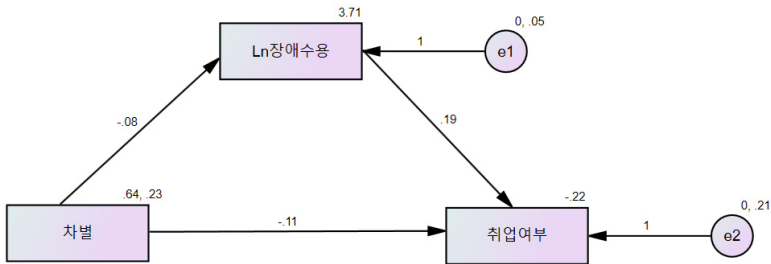
*p<.05, **p<.01

3. 구조모형 분석

본 연구모형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2]와 〈표 4〉와 같다. 먼저 차별이 Ln장애수용($B=-.084$, $p<.001$)과 Ln장애수용이 취업여부($B=.188$, $p<.001$)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차별이 취업여부($B=-.110$, $p<.001$)에 이르는 직접경로도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차별경험이 있을 때 장애수용의 정도가 낮아지고, 취업할 확률이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장애수용의 정도가 높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통제변인들의 효과를 살펴보면, 연령이 장애수용($B=-.002$, $p<.001$)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유의하며, 마찬가지로 학력($B=.040$, $p<.01$)과 장애정도($B=-.039$, $p<.01$), 혼인상태($B=.052$, $p<.001$)가 각각 장애수용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력($B=.114$, $p<.001$)과 장애정도($B=-.147$, $p<.001$), 혼인상태($B=.053$, $p<.05$)가 각각 취업여부에 이르는 직접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 때, 장애정도가 경증일 때, 배우자가 있을 경우 장애수용의 정도가 높아지며, 그리고 학력이 높을 경우, 장애정도가 경증일 때, 배우자가 있을 때 취업할 가능성이 높아짐을 뜻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차별경험은 장애수용과 취업여부에 각각 영향을 미치고, 장애수용 또한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며, 그리고 차별경험은 장애

수용을 거쳐서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매개효과 분석결과

〈표 4〉 분석결과⁵⁾

경로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표준오차	C.R
차별 → Ln장애수용	-.084	-.172	.013	-6.523***
Ln장애수용 → 취업여부	.188	.092	.054	3.511***
차별 → 취업여부	-.110	-.111	.026	-4.179***

***p<.001

4.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모형에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해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정리해서 다음의 〈표 5〉에 제시하였다. 차별경험이 취업여부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총효과가 -.126, 직접효과가 -.120, 그리고 간접효과의 값은 -.006으로 나타났다. 이때 차별경험과 취업여부 두 개의 변인 사이에서 장애수용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⁶⁾, 장애수용은 차별경험과 취업여부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장애수용을 거쳐 취업여부에 간접적

5) 분산팽창계수는 모두 1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이 낮다.

6) 차별경험이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장애수용의 직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은 95% 신뢰구간에서 부트스트래핑의 BC 법이 하한과 상한사이(-.155 ~ -.064)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였으며,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은 95% 신뢰구간에서 편차교정이 하한과 상한사이(-.026 ~ -.010)에 마찬가지로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즉, 장애인이 차별경험이 있을 때, 장애수용의 정도가 낮아지며, 이를 토대로 취업할 확률이 높아짐을 뜻한다.

〈표 5〉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차별→장애수용정도→취업여부	-.126 [*]	-.120 [*]	-.006 ^{**}

*p<.05, **p<.01

V. 결론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이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있을 때, 취업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진 기존의 여러 연구들(박미희, 2018; 오혜경, 2002)의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또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있을 때, 장애수용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장애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된 선행연구들(김동주·고민석, 2012; 양혜린·고윤정·박연미·이혜란, 2017; 정승원, 2012; 최서경, 2018)의 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의 장애수용의 정도가 높아지면 취업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애수용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유승희(2016), 송지연(2018)의 연구와 일치한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장애수용의 부분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이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있을 경우 장애수용의 정도가 낮아지며, 이를 토대로 취업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성장애인이 가정이나 학교, 사회 등에서 차별을 당할 경우 위축감 및 소외를 느끼며 또 자존감의 하락 등으로 스스로 장애를 받아들이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는 또한 취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함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있을 때, 취업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여성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향상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성장애인은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이라는 이중차별을 경험하고 있는데(김정애, 1999), 이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차별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선우, 2009).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가족들로부터 차별과 폭력을 당한 적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결과에 근거(김성희 외, 2017)할 때, 여성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학대예방 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 현재 어린이집, 학교, 관공서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그동안의 장애연구와 이론은 주로 남성 장애인의 경험을 다루어 왔는데(김미혜·장숙, 2014; 윤명숙·박현정, 2011),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며, 또, 전통적으로 여성장애인은 여성의 경험에 관한 연구에서도 외면을 당해 왔는데 이에 대한 변화도 이루어져야 될 중요한 과제이다(오혜경, 2006). 여성장애인들이 전반적으로 남성장애인들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비율이 높으며⁷⁾, 빈곤에 취약한 상황을 고려할 때, 여성장애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감소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장애수용의 부분 매개효과를 보인 결과에 근거하여 차별경험에 의해 초래된 여성 장애인의 취업의 어려움 및 미취업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수용의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차별경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미취업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장애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심리·정서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해야 될 것이며, 또, 긍정적인 자기 가치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장애수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취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서 궁극적으로 여성장애인의 취업률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장애수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 중에서 최근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료상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되는데, 이채식·김명식(2015)의 연구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동료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대감을 확인하고 상호간의 경험을 공유하며 장애수용이 잘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동료상담

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비율이 교육급여를 제외하고 생계·의료·주거급여에서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성희 외, 2017).

프로그램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동료상담에서 문제의 주체는 당사자로서, 집단동료상담은 5~8명 정도의 인원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주제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며,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상대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경청함으로써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cafe.daum.net/suwonil).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미취업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차별경험 실태를 조사하여 개인별 차별의 정도에 따른 맞춤형 장애수용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여성 장애인들의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비록 차별경험이 없거나 차별의 정도가 낮은 여성 장애인일지라도 장애를 수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취업의지를 고취시켜 취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⁸⁾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여성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성장애인취업성공 패키지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장애수용 프로그램도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이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면, 본 연구는 2차 자료의 한계상 여성장애인이 경험한 차별을 일상생활 차별경험 여부로 살펴봄에 따라 차별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성 장애인이 인지한 교육, 문화,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겪은 차별의 정도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통한 개인의 심리적 상태 등을 포괄하여 분석함으로써 좀 더 정교화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 전문상담, 장애인 심리검사·직업평가, 장애인 집단상담 프로그램, 장애인전용 직업훈련 등의 세부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참고문헌

- 강미영(2009). 정신장애인이 인지하는 차별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 강동욱(2002). “노동시장의 여성장애인 이중차별구조”. 사회복지정책. 제15권, 7-32.
- 강용주·박자경·구인순(2008). 자아인식·자아수용검사 타당화 연구. 성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권명옥·서은정·이한우·이상복(2000). “장애를 지닌 여성인력에 대한 취약구조 분석과 지원체계”. 再活科學研究. 제16권 제1호, 33-64.
- 권선진(2008).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지각과 차별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18권 제1호, 81-104.
- 권충훈·최희철(2016).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도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전망적 효과: 장애인고용 패널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제55권 제2호, 149-172.
- 김나래(2017). 중고령 경증 신체 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비교.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주·고민석(2012). “직장 내 차별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직장만족과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직업재활연구. 제22권 제2호, 5-29.
- 김미혜·장숙(2014). “뇌졸중 남성 장애인의 중도 장애 경험”. 재활복지. 제18권 제3호, 47-72
- 김성희(2000). 장애발생시기와 귀인양식이 장애수용과 우울반응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김성희·이연희·오옥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오다은·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애·임유진(2018). “장애수용이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 취업준비행동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장애인복지학. 제39권, 108-126.
- 김자영(2018). “근로장애인의 장애수용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제38권 제3호, 363-391.
- 김정아(2013).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애(1999).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하경(2002). “지체부자유학생의 장애수용도와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지체. 중북. 건강 장애연구. 제40권 제0호, 23-38.
- 김하영(2013).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승현(2007). “노령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중년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제11권 제1호, 30-60.
- 박미희(2018).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인적자본 및 차별 요인의 영향.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화옥·김성희(2004).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와 관련요인”. 한국장애인복지학. 제1호, 61-83.
- 백영승·김성희·유미·김춘수(2001). 자아인식검사 개발 연구보고서. 성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백은령·오혜경·전동일(2007). “여성장애인의 취업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제17권 제1호, 223-248.
- 성준모(2016). “정신적 장애인의 취업에 중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요인”. 장애와 고용. 제26권 제3호, 125-148.
- 송지연(2018). 발달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취업의 관계 :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진영(2014).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장애수용과 취업여부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진영·김형모(2014).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장애수용과 취업여부의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1호, 199-225.
- 수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2019.09.03.). “수원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cafe.daum.net/suwonil”에서 2019.09.03. 인출.
- 양혜린·고윤정·박연미·이혜란(2017). “차별경험과 자기효능감이 후천적 지체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조건부 과정 모델링을 통한 사회참여 활동의 역할을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제27권 제3호, 89-112.
- 안태희·김영애·이금진(2018). 장애여성 고용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오혜경(2000).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리뷰. 제5권 제1호, 53-72.
- _____(2002).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및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판

- 사회정책. 제13권, 113-146.
- _____(2006). “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및 차별해소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리뷰. 제11권, 27-74.
- 유동철(2000). “여성지체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 분석: 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15권 제1호, 73-108.
- 유승희(2016). “장애 발생 시기가 장애인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장애수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36권 제3호, 428-448.
- 윤명숙·박현정(2011). “장애인 문제음주자의 삶의 경험”. 재활복지. 제 15권 제1호, 149-178.
- 이선우(2004). “장애인복지정책에 나타난 성차별”. 사회복지정책. 제18권, 247-272.
- _____(2009).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 파주시: 집문당.
- 이승기·윤상용·서동명(2016). 장애인복지론. 서울: 신정.
- 이채식·김명식(2012). “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22권 제1호, 29-54.
- _____(2015). “중도장애인의 취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특성과 종단적 변화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25권 제2호, 5-27.
- 임은자(2004). “여성장애인의 인권개선을 위한 실천과제: 성폭력·가정폭력 및 결혼관련 실태 및 사례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26권, 183-21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19.5.20.). “차별행위.”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0420#P4>에
서 2019.05.20. 인출
- 정승원(2012). “고용관련 환경요인이 장애당사자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제22권 제4호, 323-350.
- _____(2014). “청각장애인의 장애수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전망적 효과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1호, 167-197.
- 조금분·백진아(2018). “융복합 시대 취업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제8권 제2호, 133-140.
- 최서경(2018). 정신장애인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운정·박경수·이석호(2014). “중고령 여성장애인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장애와 고용. 제24권 제3호, 123-14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2019). <https://edi.kead.or.kr>.

- 하경희·성준모(2012). “정신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장애유형 간 비교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제16권 제2호, 131-158.
- Barnes. C., G. Mercer. & T. Shakespeare.(1999). *Exploring Disability: a Sociological Introduction*. Cambridge: Polity Press.
- Kaiser, S. B., Wingate, S. B., Freeman, C. M., & Chandler, J. L. (1987). Acceptance of physical disability and attitudes toward personal appearance. *Rehabilitation Psychology*, 32(1), 51-58.
- Li. L., & Moore, D.(1998). Acceptance of Disability and its Correlate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8(1), 13-25.

Abstract

Discrimination Experience Effects on Employment Status of the Disable Wome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Kim, Jayoung*

This study investigated discrimination experience effect on employment status of the disabled women and analyzed whether the effect is mediated by disability acceptance. For the research we used the 2st year data of second wave 2017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using Path analysis with A-MOS 20.0. According to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First discrimination experience is found to have direct effect on employment status as well as disability acceptance. And disability acceptance is also found to have direct effect on employment status. Second, we found not full but partial mediating effect of disability acceptance between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employment status. Based on this research, it is necessary to select an unemployed disabled women with a high degree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which allows them to accept their own disabilities as they are and form a positive self-worth sense.

Keywords : disabled women, discrimination experience, disability acceptance, employment status, mediating effect

* Senior Researcher,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Welfare, Sungkyunkwan University